venture focus

벤처, 세계로! 세계로!

벤처기업 글로벌전략 눈에 띄는 성과

벤처기업 수출실적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벤처들이 해외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자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더 넓은 무대에서 희망을 확산시키고 있다.

다날 휴대폰 결제기술, 해외 언론서 잇따른 관심

다날(www.danal.co.kr, 대표 박성찬)의 휴대폰 결제기술이 해외 언론에서 잇따른 관심을 받았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지난 3월 1일자 온라인 판에 'In Korea, Cell Phones Get A New Charge (새로운 결제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휴대폰)'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게재하면서 다날을 국내 휴대폰 결제 시장의 개척자로 소개했다.

아시아 섹터의 톱기사로 실린 이 기사는 한국에서는 신용카드 대신 휴대폰 결제를 통한 온라인게임이나 인터넷콘텐츠, 상거래를 이용하는 네티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날의 휴대폰 결제 개발 역사와 이용방법, 이용범위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또한 다날이 중국 제1의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를 시작으로 일본, 동남아,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에도 조만간 이와 같은 휴대폰 결제 서비스가 도입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내 가장 영향력이 높은 IT매체인 '인터넷주간'도 지난 3월 1일자 특집에서 휴대폰 결제 및 은행 관련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중국 휴대폰 결제업체들이 이상적으로 손꼽는 회사로 다날을 소개했다.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의 휴대폰 결제 상황을 소개하는 이 기사는 휴대폰 결제업체인 상해지에인(SMARTPAY)의 션궈웨이(沈國偉) 총재의 말을 빌려 "다날과 같은 독립적인 제3자 결제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다날의 박성찬 대표는 "최근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다날의 휴대폰 결제기술에 대한 해외 언론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휴대폰 결제기술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했듯, 이제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날은 지난 1999년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다날의 휴대폰 결제기술은 IR52 장영실상을 비롯해 벤처대상 대통령표창, 모바일 기술대상, 정보통신부장관상 등 다수의 수상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2003년 대만에 휴대폰 결제기술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말에는 중국 차이나모바일을 통해 중국 전역에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경, 국산 신·재생 에너지기술의 해외수출 길 열어

한국의 환경·에너지설비 벤처기업인 기경(www.kkiec.com, 대표 김기경)이 말레이시아 Octagon社와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말레이시아 Selangor(셀랑고)州에 하루 120톤 규모의 폐타이어 열분해 공장을 건설하기로 계약했다.

기경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의 '폐타이어 오일화 공정 및 프랜트화 기술'을 이전받아 열분해 공장을 건설하며, 폐타이어에서 하루에 벙커C유 60톤, 카본블랙 12톤 등을 생산한다.

이번 계약으로 연간 약 100억원의 매출이 기대되며, 기술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블렉스, 日에 케이블모뎀 수출

케이블모뎀이 INKE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본에 수출된다.

케이블모뎀 개발업체 케이블렉스(www.cablerex.com, 대표 김태희)는 일본의 BTV Cable Television社와 연간 500만달러 규모의 케이블모뎀 공급 계약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하는 케이블모뎀은 광동축혼합망(HFC)을 이용해 40Mbps급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광대역 통신장비.

케이블렉스의 김태희 대표는 "현재 IT 경제가 급부상 중인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이 달 중순, 향후 3년간 최소 1억달러 이상의 인터넷 단말 및 셋톱박스(STB)장비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HFC망을 이용해 40Mbps급 이상 초고속 광대역 액세스 망 구축에 필요한 케이블모뎀, VoCM(Voice over Cable Modem) 및 xDSL 제품군 등 초고속 인터넷 단말 관련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다.

휴맥스, 일본시장에 케이블 방송용 HD PVR 셋톱박스 세계 첫 공급

디지털 가전 벤처기업인 휴맥스(www.humax.co.kr, 대표 변대규)가 일본 최대 케이블 방송사업자인 '제이콤'에 케이블 방송용 HD PVR 셋톱박스를 공급한다.

휴맥스 일본법인(Humax Japan, 법인장 안복영)은 일본 최대 케이블 방송사업자인 제이콤과 공급계약을 맺고, 케이블 방송용 HD PVR 셋톱박스(모델명 : JC-5000)를 휴맥스 자체 브랜드로 공급하게 되었다고 지난 3월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휴맥스와 제이콤은 지난 3월 8일, 일본 동경에서 변대규 대표와 제이콤의 모리즈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기자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제품의 출시에 따른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계약은 휴맥스가 일본현지 기업 및 해외 기업을 막론하고, 일본의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처음으로 PVR기능이 내장된 케이블 셋톱박스를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시점에서, 최초로 일본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진출을 계기로 일본 케이블 비즈니스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기술력 인정과 함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휴맥스가 공급하는 제품은 250기가바이트의 하드디스크가 내장돼 있어, 20시간 이상 연속녹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제이콤은 휴맥스가 갖고 있는 일본방송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고, 해외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공급실적, 기존 PVR 제품의 기술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휴맥스는 지난 2001년 12월에 동경 현지판매법인을 설립했고, 일본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퍼펙TV 社에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셋톱박스를 공급해오면서 현재 소니와 함께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리얼타임테크, 일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눌렀다"

국내 IT벤처기업이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20억 상당의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일본 증권회사에 수출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리얼타임테크(www.realtimetech.co.kr, 대표 진성일)는 일본의 대형 온라인증권회사인 카부닷컴(대표 사이토마사카즈)에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용 소프트웨어인 '카이로스'를 수출해 일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카부닷컴 증권의 아베 총괄부장은 "처리량이 가장 많을 때 CPU점유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DBMS를 사용했을 땐 70%였다. 하지만 카이로스로 교체하자 20%가 감소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리얼타임테크는 일본의 소프트뱅크테크놀러지, 히다치시스템 등 대형업체들과 딜러 계약을 맺고 일본에서의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일본에서의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venture focus

쑥쑥 올라가는 실적, 쑥쑥 크는 벤처

매출 · 영업이익 등 실적 크게 개선

인크루트, 합병 1년 만에 '흑자경영' 토대 마련

취업 · 인사 전문 포털인 인크루트(www.incruit.com, 대표 이광석)는 HR시장확대와 ERP수익기반확대 등으로 합병(舊 뉴소프트기술과 2005년 3월 3일 합병) 1년 만인 올해부터 흑자경영에 돌입할 것이라고 지난 3월 15일 밝혔다.

인크루트의 2005년 매출액은 125억원이고 당기순손실액은 14억 9천만원이다. 이중 영업외 비용(지분법, 법인세 등)이 9억가량을 차지한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HR사업은 매출액 73억 6천만원, 영업이익 8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기 39.7%, 102.3% 증가했다. 이는 매출증대에 따른 이익 증가와 신규 서비스 안정화로 큰 폭의 성장을 거뒀기 때문이다.

인크루트는 올해 매출액 200억원, 영업이익 21억 5천만원(영업이익률 11%)을 목표로 하고 있다. HR사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76.5% 증가한 130억원, ERP사업 매출액은 35.6% 증가한 7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유료구매 고객 기반 확대와 인사 · 교육서비스 확대, 대학 · 정부의 공공취업지원서비스 등 이익 기반이 강화되고 사업범위가 다양화되고 있어 올해 역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ERP사업은 연구개발 및 고객지원 강화를 통한 매출성장과 함께 상반기 안에 흑자 사업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세계 HR시장은 14억달러(2003년), 20억달러(2005년), 23억달러(2006년 예상, 출처 Forrster Research)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HR시장 역시 300억(2003년), 600억(2005년) 등 기록적인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국내 HR시장규모가 8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인크루트 추정)되는데다, 인사 · 교육, 공공취업지원서비스 등이 시작단계임을 감안한다면 국내 HR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장 확대를 통한 고성장을 위해 인크루트는 올해 아르바이트, 인사교육, 공공취업지원, 지역사업 등을 공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유연화 추세와 주5일 근무 등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비정규직 채용시장(파견, 아르바이트 등)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알바팅'(아르바이트, 단기직 전문 취업 사이트) 사업을 강화,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HR사업부문의 고성장과 ERP부문의 수익성 확보로 인해 올해는 성장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합병 1년 만에 흑자경영의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올해는 본격적인 이익창출에 돌입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컴텍코리아, 실적호전+주주배당··무상증자 보너스

디지털방송 솔루션 전문기업인 컴텍코리아(www.comtech.co.kr, 대표 노학영)는 최근 코스닥 상장 이후 최고 매출액 달성 및 정통부의 디지털방송 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주가가 재평가되고 있다.

컴텍코리아는 탄탄한 영업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5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63% 증가한 11억 2천만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매출 400억원에 영업이익 40억원의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컴텍코리아는 주주들의 투자이익 실현을 위해 40%에 해당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년 말 주당 10% 주식 배당과 신규 전략 사업인 디지털콘텐츠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한 25% 유상증자도 진행한 바 있다.

유상증자에 이어 진행되는 무상증자 신주 배정기준일은 4월 24일, 상장일은 5월 23일 예정이며 발행될 무상 신주는 344만주이다. 컴텍코리아의 긍정적인 실적 배경은 연구 개발력 강화를 통한 신규 솔루션 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 정통부의 디지털 방송 활성화 대책에 따른 디지털 방송 시장 투자 확대, 브랜드 사업인 '키플링'의 매출 호조 전망에 따른 것이다.

컴텍코리아 노학영 대표는 "이번 무상증자를 통한 유동 물량 증가는 실적개선과 투자에 대한 성과가 구체화될수록 장기적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컴텍코리아의 미래비전을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더존디지털웨어, 코스닥 최고 영업이익률 자신

더존디지털웨어(www.thezone4u.net, 대표 유수형)가 중소기업 경영업무 전산화를 위한 경영정보 솔루션(MIS) 분야의 선두그룹을 달리고 있다.

지난 1991년에 설립된 더존디지털웨어는 마땅한 회계 프로그램이 없던 당시 '네오플러스(Neoplus)'를 선보이며 일약 이 분야의 스타기업으로 뛰어올랐다. 현재 전국 8000여 개 세무회계 사무소의 92%가 네오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7000여 개의 신규업체가 새로운 수요층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

이미 지난해 코스닥 상장업체 가운데 최고인 5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더존디지털웨어 유수형 대표는 "보수적으로 잡은 올해 영업이익률 목표치가 62%"라며 "올해 역시 코스닥 최고의 영업이익률 달성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체질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했다"며 "신제품 출시를 통해 영업을 강화한다면 수익률 1위 기업 수성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네오플러스의 강점은 생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것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수익률의 비결도 이때문이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해 가격 대비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도 큰 장점이다.

더존디지털웨어는 'R1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은행전표, 세금계산서에 2차원(2D) 바코드를 부여해 리더기로 판독만 하면 자동 전산 처리 되는 시스템 '네오큐Q'를 개발했으며, 판매단가 35만원 기준으로 네오큐Q의 매출 예상액은 3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R2 프로젝트'는 회사 경영자들에게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주요 회계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 개발계획으로, 이르면 6~7월 상용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은행지로나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고지서를 편의점 등에 설치된 기계로 판독하는 시스템 개발도 'R3 프로젝트'로 명명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빛소프트, 전년대비 매출 62.5%, 영업이익 121.5% 증가

한빛소프트(www.hanbitsoft.co.kr, 대표 김영만)는 지난 3월 3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총 매출액 496억 7천만원, 영업이익 28억원, 경상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각각 24억 3천만원을 기록, 2005년 실적이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한빛소프트의 2005년 실적은 2004년에 비해 매출액 191억 1천만원(62.5%) 상승, 영업이익 158억 5천만원(121.5%),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6억 5천만원(113.4%)이 증가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새로운 성장 동력인 온라인게임과 해외사업부문의 폭발적인 실적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한빛소프트 김영만 대표는 "현재까지 한빛소프트의 해외 온라인게임 라이센스 계약 체결금액은 총 2600만달러, 한화 약 26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바탕으로 현지상용화 이후 꾸준한 러닝로열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캐릭터 부문 또한 전년대비 95억 5천만원(123.3%)이 증가하며 온라인게임과 더불어 한빛소프트의 또 하나의 캐쉬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캐릭터 부문은 일본 반다이사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온라인게임의 퍼블리셔로 자리매김한 한빛소프트는 올해에도 대작으로 꼽히는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고, 연말까지 '헬게이트 : 런던' 등 기대되는 게임들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한빛소프트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 게임들의 해외 수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츄럴엔도텍, 식물성여성호르몬제로 실적 증가

바이오벤처 내츄럴엔도텍(www.naturalendo.co.kr, 대표 김재수)의 금년 매출이 획기적으로 신장되고 있다. 내츄럴엔도텍이 개발, 판매하고 있는 식물성여성호르몬제는 성균관대 의대 삼성제일병원에서 1년간 임상시험을 통해 안면홍조 및 성교 통증 등을 비롯한 여성 갱년기 증상을 개선한 특허성분으로, 인삼을 제외한 천연식물 추출물로서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3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거둔 바 있다.

내츄럴엔도텍은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바탕으로 매출신장을 이뤄 작년 4/4분기 매출실적 18억에 이어 올 1/4분기 수주잔고가 15억여 원을 돌파하고 있어, 금년 매출목표 60억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츄럴엔도텍은 올 1월 10일자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안슐린양 성장인자 (IGF-1)의 분비를 유도하는 조성물과 용도에 관한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본 특허 조성물은 내츄럴엔도텍이 3년에 걸쳐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시험 등을 통해 안전한 식물소재로부터 성장호르몬을 선택적으로 분비 및 촉진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venture focus

성장의 新동력!
새롭게 등장한 제품과 기술

NHN, 네이버 '월드타운' 서비스 오픈

NHN(www.nhncorp.com, 대표 김범수 · 최휘영)의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월드타운'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이버는 일본 최대의 맛집 사이트 '구루나비'와 전 세계 호스텔 정보업체 '호스텔 타임즈', 홍콩 'Foodeasy', 중국 '차이나 원' 등 제휴사의 지역정보를 우리나라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한글화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월드타운'은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인구 등의 도시 기본정보와, 현지생활정보 그리고 지하철노선도, 호텔, 음식, 쇼핑, 레저 등의 여행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월드타운'에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슈퍼코리안'을 제공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과 교포들이 서로 생활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NHN 최휘영 대표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해외 출국자와 재외교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해외 지역정보의 중요성이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면서 "지역정보 제공 국가를 더욱 확대하고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생한 정보를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해 믿을 수 있는 지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듀윌, 유통관리사 자격증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작

온라인 자격증 고시 사이트인 에듀윌(www.eduwill.net, 대표 앙형남)이 유통관리사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전문화된 온라인 교육 수업이 가능하게 되어 유통관리사 합격이 손쉬워지리라 예상된다.

유통관리사는 연 2회 시행되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의 국가공인시험으로 자격취득 시 유통관련 기관 및 유통회사, 물류회사에서 유통실무, 유통관리, 판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무원, 검정고시, 유망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증 및 고시 분야에서 발군의 콘텐츠와 교육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다.

에듀윌 앙형남 대표는 "단기적인 매출증대보다는 고객만족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왔다"며 "모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웹이엔지코리아, '무영검' 액션게임 출시

무협영화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그대로 재현, 생동감 있는 액션화면을 즐길 수 있는 액션모바일

게임이 출시돼 격투액션게임을 즐기는 엄지족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최대 모바일게임업체 웹이엔지코리아(www.webengkr.com, 대표 전유)는 영화 '무영검'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살린 동명의 대전 액션게임인 '무영검'을 지난 3월 16일부터 SK텔레콤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게임 '무영검'은 게이머가 영화 속 주인공들이 되어 스토리에 따라 액션 대결을 벌이는 스탠드얼론(Stand Alone) 게임이다. 각 캐릭터마다 필살기를 부여하고, 연타공격과 태그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액션대전의 긴박함을 한껏 살린 것이 특징이다. 또 여러 스테이지와 스코어 개념의 랭킹 모드를 지원해 사람들 간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플레이를 유도하고 있다.

웹이엔지코리아 전유 대표는 "올해 기존의 라이선스 사업을 통한 게임개발과 해외 유명게임의 퍼블리싱, 3D 및 스포츠 장르의 신규 창작게임 등을 포함, 10개 내외의 게임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프트런, 개인용 키보드보안서비스 '원클릭가드' 출시

국내의 대표적인 패치관리 전문업체인 소프트런(www.softrun.com, 대표 황태현)은 최근 개인용 키보드보안 서비스인 '원클릭가드'를 출시하고 엠파스를 비롯한 마이폴더넷 등 주요 포털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프트런은 최근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개인사용자 계정 도용사건과 인터넷뱅킹 해킹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개인용 키보드보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원클릭가드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PC 키보드를 통해 입력하는 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카드번호, 계좌번호와 같은 금융결제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준다.

특히 원클릭가드는 보안영역에 따른 커서 색상 변화와 키보드 입력창의 이미지 노출 등 사용자가 직접 키보드보안의 동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특정 웹페이지를 접속할 때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키보드와 호환이 되며 키보드 하드웨어 영역부터 시스템 및 웹 브라우저 영역까지 모든 구간에 대한 보안이 가능하다.

현재 소프트런은 키보드보안과 관련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키보드 해킹 방지와 관련된 국내 특허등록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해외 26개국에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이다.

엠씨넥스, 초소형 3M AF카메라 모듈개발

엠씨넥스(www.mcnex.com, 대표 박상규)는 CIS(CMOS Image Sensor)를 사용한 초소형 3M AF(Auto Focus)급 카메라 모듈과 2M AF급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M AF 모듈은 기존 3M 카메라 모듈의 크기를 4mm 정도나 획기적으로 줄인 크기이다. 최근 시장의 트렌드인 '슬림화'에 따라 대체적으로 크기가 큰 고기능 AF 모듈은 시장진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엠씨넥스의 신제품 개발로 고화소·고기능 제품도 슬림폰 적용 및 대중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슬림화를 위해 카메라 모듈의 높이를 줄일수록 영상의 왜곡은 많아진다. 특히 상의 주변부에 갈수록 해상력을 비롯하여 각종 수치에 의한 왜곡 등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엠씨넥스는 이미지 센서 내 픽셀 크기를 줄여 영상 센싱 영역(Active Pixel Array Area)을 크게 축소시키고, 바꾸면 렌즈기술을 적용하는 등 2006년 2월 초소형 2M 카메라 모듈 개발 시 확보한 소형화 기술을 적용해 해결했다. 앞으로 엠씨넥스는 7M, 8M급의 고화소·고기능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코리아와이즈넛, 신규사업 싸이마켓 오픈마켓플레이스 수주

지난해 다음d&shop과 삼성몰 등 쇼핑몰 및 오픈마켓플레이스 사업에 쇼핑전용 검색엔진을 공급한 바 있는 코리아와이즈넛(www.wisenut.co.kr, 대표 박재호)이 네이트몰 및 신규사업(싸이마켓) 오픈마켓플레이스에 쇼핑몰 전용 검색엔진 '에스에프원 머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코리아와이즈넛 박재호 대표는 "빈번한 상품 변경이 필요한 오픈마켓플레이스 분야에서 대용량의 고속검색 아키텍처로 설계된 쇼핑몰전용 검색엔진 에스에프원 머큐리(SF-1 Mercury)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와이즈넛은 지난 3월 9일에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세빗 하노버 2006'에 참가했다. '세빗 하노버 컨퍼런스'는 미국의 컴덱스와 함께 세계 정보통신 분야를 대표하는 전시회로, 각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놓고 전 세계의 바이어들과 구체적인 구매 상담이 이루어진다. 코리아와이즈넛의 해외사업담당 강용성 부장은 "빠르진 않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 만큼 2006년은 글로벌 검색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코리아와이즈넛을 기대해도 좋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핸디소프트, 삼성생명 보험운영센터 BPM 구축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핸디소프트(www.handysoft.co.kr, 대표 정영택)가 삼성생명(www.samsunglife.com, 대표 배정충)의 보험운영센터(Operation Center, OP센터) BPM 구축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삼성생명의 핵심 업무인 고객관리 업무 중에서 후선 지원(Back Office)을 집중화시키고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구축될 OP센터 시스템은 원활하고 신속한 후선 업무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프로세스 관리의 효율성, 비즈니스 유연에 대한 민첩성 등을 반영해 구축할 계획이다.

핸디소프트 영업본부장 윤기정 부사장은 "이번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지난해 교보생명 BPM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적용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 경쟁사들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